

진 정 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는 우리민족의 번영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쉬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 충현교회는 1953년 설립이후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36번지에 소재하여 교세가 확장되던중 1970년 12월 30일 강남구 역삼동 665-1(당시 잡종지)번지에 9,000평을 매입하여 이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족과 사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교회당 신축부지중 시당국의 도시계획 환지로 3,305평을 제공하고 나머지 약 5,695평 대지에 세계적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당국은 주거 전용지라는 이유로 대형건물 신축을 허락지 않던 중 1975년 12월 9일자 일간지를 통해 본교회 성전 대지를 갑자기 학교 부지로 공고하였습니다. 본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관계부처에 교회부지 환원을 호소하였고 마침내 서울시장의 환원약속을 받아 그후 3년이 지난 1978년 6월 20일로 본 대지를 교회가 다시 환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교회는 즉시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으나 당국은 이해키 어려운 이유를 들어 허가를 지연해 오던중 700평 규모의 아동공원 시설을 교회가 제공하면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납득키 어려운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미 환지로 3,305평이 도로와 공원등, 공공시설 용도로 제공되었습에도 불구하고 또 아동공원 700평을 시설하여 시에 제공하는것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합당한 방법인가요? 당시 교회로서는 1만명이 넘는 성도를 더이상 수용할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백방으로 이의 시정을 원하면서 허가를 요청했지만 당국의 강요에 못이겨 결국 수락함으로 1980년 2월 14일자로 건축허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로 8년8개월만인 1988년 12월 21일 세계적인 대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아동공원 문제로 아직껏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이행하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2만 5천명이 넘는 교세를 가진 충현교회 본당 정문앞 전체를 수만명의 출입을 막는 어떤시설도 교회는 시설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당 정문 앞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 출입을막는 울타리가 쳐진것을 상상해 보시면 이진정서를 왜 올리고 있는지 헤아리실수가 있을줄 압니다. 90년 8월에 아시아선교대회(약 2,000명 외국목사및 선교사) 91년 7월에 세계기독교사선교대회 (약 1,200명 기독교인의사 참석), 95년도에 계획된 GCOWE '95 세계선교대회(참석인원 5,000명 세계저명인사 전직대통령, 목사등), 또한 매년 실시되는 전국목사장로기도회(전국목사장로 약4,000명 참석)등 수없이 많은 각종 국내외 대회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열릴 이성전 앞마당을 아이들의 놀이터로 만들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수많은 성도들의 출입구를 막는 공원설치는 교회로서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미 도시계획후 2년이내에 지적고시 미필로 실효된 공원을 이제와서 재 지적고시 한다면 교회로서는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상기와 같이 진정하오니 본 교회당의 준공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충현교회는 민족의 성전이요 세계최대규모의 개신교 예배당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장으

로 만들것이며 국가발전과 사회정의를 위해 교회의 인접부지에 봉사관을 건축하여 현재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국가에 헌납하여 장애인 교육및 사회봉사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산9번지 약6만 5천평위에 충현복지마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담벽을 쌓지 않고 누구나 실수 있는 벤취와 공간과 아름다운 조경으로 지역주민과 주변건물의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있기 때문에 별도 공원 부지 조성은 큰 의미를 부여할수 없을 뿐더러 교회에 엄청난 부담과 각종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2만5천여 충현가족의 이름으로 공원부지 재 지적고시의 진행을 중지토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 5.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당회장 신성종